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The Effects of Self-care and Parental Monitoring on Peer Relations and
Perceived Cognitive Self-Competence of School Age Children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천희영
광주대학교 사회학부
부교수 옥경희
구미1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김미혜

Dept. of Child Studies, Kosin University

Prof. : Chun, Hui Young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Asso. Prof. : Ok, Kyung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umi 1 College

Asso. Prof. : Kim, Mee Ha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의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 and perceived cognitive self-competence according to 1) grade, sex, and self-care, 2) parental social status and monitoring.

429 3rd- and 6th- graders (238 boys and 191 girls) were included as subjects. For measuring variables, RCP, Harter's Perceived Cognitive Self-Competence Rating Scale, and Parental Monitoring Questionnaire based on Crouter et al.(1990)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sed by MANOVA, t-test, and univariate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ocial-Leadership' of peer relations was influenced by children's grade, grade \times sex effects. 3-way interaction of children's variables and parental monitoring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hy-Isolation'. Children's perceived cognitive self-competence was influenced by their grade and parent's social status. These results confirmed the significant roles of self-care and parental monitoring in children's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자기보호 아동(self-care children),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perceived cognitive self-competence), 또래관계(peer relation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기보호 아동은 방과후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나 성인의 도움 없이 일정 기간동안 자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보다 더 어린 아동들을 함께 돌보는 책임을 담당하는 아동이다(Rodman, Pratto, & Nelson, 1985). 미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재학 저학년 아동 중 13%~15%의 아동이, 우리 나라에서는 21.4%~37%의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으로 보고된 바 있다(천희영, 1999a). 기혼 여성의 취업율이 계속 증가되는 가운데, 대가족 제도에서는 가능하던 친인척의 대리양육이 용이치 못한 실정에서 자기보호 아동의 방과후 생활지도를 위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다(이옥, 1999). 예로서 방과후 탁아대책을 위해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기보호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복지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Halpern(1992, 이옥, 1995에서 재인용)은 학령기 아동이 외현적으로는 영유아나 청소년층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인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와 성장을 겪는다고 했다. 더욱이 학령기의 저학년 아동은 유아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하며, 실제로 어머니들은 아동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기를 초등학교 6학년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정현희, 최경순, 1996). 이에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 여부는 아동의 발달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의 보호 없이 집에서 스스

로를 돌보는 능력과 한계로 인해 각종 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호부재로 인한 청소년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된 바 있다(한국일보, 1993). 사회적 적응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도 자기보호 아동은 비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도와 사회적 능력이 낮으며, 문제행동을 보여 사회적 적응과 학교적응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최경순, 정현희, 1996). 특히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평판과 사회적 관계망을 설정하도록 하며, 또래간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천희영, 1999b). 그러나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주의와 경계심으로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주어 친구집을 방문하거나 집 밖에서 노는데 제약을 가함으로써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결핍되게 된다(Long & Long, 1992). 이에 자기보호 아동은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또래간 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Vandell & Ramanan, 1991).

물론 자기보호에 의해 아동들이 받게 되는 부정적 영향 외에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도 발견된다. Harris(1981, 최경순, 정현희, 1996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기보호 아동들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책임감, 자신감, 독립심이 더 높아지며,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동보다 자기보호 아동은 독립심과 책임감을 갖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Gabarino(1980, 강병기, 1990에서 재인용)는 보고했다. 천희영(1999a)의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이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다른 아동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들도

정리·보고되었다. 특히 Vandell과 Corasaniti(1988)는 농촌 중류층의 자기보호 및 어머니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기보호 아동은 가난과 자기보호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Harris, 1981, 최경순, 정현희, 1996에서 재인용), 미성숙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두려움, 외로움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다(Kobinsky & Vaughn, 1990, 한순옥, 1996에서 재인용). 또 다른 어른들에 의해 유해한 방향으로 악용되거나 사고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익보다는 위협의 비중이 더 크다고 Gabarino(1980, 천희영, 1999a에서 재인용)는 결론지었다. 다시 한 번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보호 아동의 인지적 특성은 학업성취도로써 주로 다루어졌다. Woods(1972), Long과 Long(1983)은 자기보호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성인보호나 보육 시설에서 돌보아지는 아동들의 그것보다 낮다고 했다. Vandell과 Ramanan(1991) 역시 그들의 어휘력이 더 낮다고 보고했다. 한편, 실제 학업성취와 학업능력에 대한 아동의 자아지각은 정적인 상관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즉 자신의 학업능력을 높다고 지각한 아동은 실제 학업성취가 높은 아동이고 반면 지각된 학업능력이 낮은 아동은 실제 학업성취가 낮은 아동이었다(Harter, 1982). 또 학업영역에 대한 긍정적 자아지각은 내적 학습동기를 높여 높은 학업성취수준을 이끌게 된다고 지적하였다(Harter & Connell, 1984, 임연진, 1992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Wood(1972) 등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기보호 아동은 비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자아지각된 학습능력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호 아동은 다른 성인보호 혹은 집단에 의해 돌보아지는 아동의 성적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도 찾을 수 있다(Galambos & Garbarino, 1984; Smith & Rotatori, 1994; Vandell & Corasaniti, 1988).

그러나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와 사회적 및 인지

적 발달 특성간의 관계를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Vandell과 Ramanan(1991)의 연구에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또래관계,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 자기보호 아동의 경제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자기보호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보호 여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고려될 때 발달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자기보호 아동에 관한 우리 나라에서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즉 자기보호 아동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그들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개발관련 연구의 부류(김주현, 1995; 이옥, 1993, 1995; 정현희, 최경순, 1996; 한명희, 1992; 한순옥, 1996 등)와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을 기술하는 연구들로 나눌 수 있었다. 후자에 속하는 예를 들면, 구은미(1989)는 자기보호 아동의 자존감과 내외통제성, 김옥천(1993)은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이재연과 강성희(1992)는 자기보호 준비도를 조사하였다. 또 강병기(1990)는 사회경제적 배경·성별·자기보호 기간에 따른 지능, 성격, 학업성취를, 최경순과 정현희(1996)는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및 정서발달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김옥천(1993)의 연구를 제외하고 주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초점 맞추므로써 인지적 발달특성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강병기(1990)의 연구 외에는 지적·성격적 발달을 모두 살펴본 연구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부분 연구대상 아동을 자기보호 아동에 국한시켜 연구했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최경순과 정현희(1996)는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자기보호와 비자기보호에 따른 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자기보호의 여부와 사회계층

변인의 영향을 분리하지 않아 결과를 이해하는데 주의가 요청되었다. 셋째,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 이해를 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야 함은 Vandell과 Ramanan(1991)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러나 강병기(1990)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들간의 차이만을 연구했었다. 최경순과 장현희(1996)는 중류층 취업모 가정의 자기보호 아동의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중류층 취업모의 비자기보호 아동과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 비교를 합리화하였다.

한편, 학령기동안 아동은 점점 많은 시간을 또래와 보내며 새로운 과의활동을 탐색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디를 왔다 갔다하는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Collins, Harris, & Susman, 1995, Crouter, Helms-Erikson, Updegraff, & McHale, 1999에서 재인용). 부모가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의 하나는 자녀의 일상경험을 '감독' 하는 것이다. 원래 부모의 자녀 감독은 "자녀의 오가는 곳, 활동 그리고 적응에 대한 주의와 탐지와 관련된 일련의 부모 행동"으로 개념화됨으로써(Dishion & McMahan, 1998, p.61, Stattin & Kerr, 2000에서 재인용) 통제수단으로서 부모가 행하는 무엇인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실제 부모감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가 무엇을 아느냐' 로써 부모감독을 측정하였으므로, 부모감독은 자녀의 활동에 관한 부모의 지식으로 재개념화 되고 있다(Kerr & Stattin, 2000; Stattin & Kerr, 2000).

학령기동안 부모의 낮은 감독수준은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 학업능력감의 감소, 높은 문제행동 수준, 특히 남아에서의 약물사용의 시작과 관련있다고 보고되었다(Crouter et al., 1999; Crouter, MacDermid, McHale, & Pery-Jenkins, 1990). 또한 청소년기에는 낮은 부모감독이 범죄, 약물사용, 십대임신과 같은 문제와 상관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Crouter et al., 1999; Stattin & Kerr, 2000) 따라서 부모의 감독은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 경향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취업모 가족의 남아가 학교 적응에 더 큰 문제를 보이는 이유는 설명하고자 했던

Bronfenbrenner와 Crouter(1982)는 중류층 취업모의 아들은 덜 효과적인 부모감독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아동기의 문제행동 연구들에 의하면 남아는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미성숙을 보이므로(Eme, 1979) 더 짧은 주의 집중시간 또는 충동의 통제수준이 낮아 어른들로부터의 더 많은 도움과 안내가 요구된다. 이 같은 점에서 부모감독의 중요성은 여아와 남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지각한 인지적 능력 역시 성과 감독변인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덜 감독된 남아의 지각된 인지능력이 가장 낮다고 보고되었다(Crouter et al., 1990).

최근의 부모감독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9)은 어머니의 직장 일하는 시간은 감독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는 형제 중 더 어린아이에 대해, 자신과 동성인 아이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Kerr와 Stattin(2000), Stattin과 Kerr(2000)는 부모의 감독 즉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는가에 따른 자녀의 적응 차이를 연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나아가 자녀의 일상경험을 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얻어진 지식이 문제행동의 예언에 유의한 요인임을 밝혀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감독을 독립변인으로 분리하여 다룬 연구는 아직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김희진(1998)이 어머니의 자녀감독 행동과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그 연구에서의 감독 의미는 특히 또래 상호작용 장면에서 부모가 자녀의 또래간 놀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놀이를 돕는 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부모감독과는 다른 개념적인 차이가 있었다. 김선애(1995)는 아동기~청소년기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부모의 통제유형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간접적 통제의 한 차원으로서 '부모의 감독'을 포함시켜 자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같이 있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유형의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달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직접통제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접통제의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선애(1995)의 연구에서 부모감독의 영향력은 다른 요인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친밀도 요인들과 혼합됨으로써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 수는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자기보호 및 비자기보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과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발달 및 학교생활에서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자기 지각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간접적으로 알고자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발달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사회적 근면성과 학업근면성(Erikson, 1950, 천희영, 1999a 에서 재인용)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를 성적으로써 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성적을 점수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독립변인에 따라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학년과 성, 그리고 자기보호 여부에 따라 아동의 또래관계와 인지적 자기능력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아는데 있었다. 아동의 연령 또는 학년에 따라 자기보호에 따른 어려움이 다르며(최경순, 정현희, 1996), 자기보호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행동과 적응, 인지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고한 Wood(1972), 강병기(1990)의 연구에 근거하여 아동의 개인변인으로 학년과 성별을 포함하였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부모변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자녀 감독정도에 따라 두 종속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었다. 이에 최경순과 정현희(1996)의 연구에서처럼 자기보호 아동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강병기(1990) 연구처럼 자기보호 아동 내에서만 가정의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자기보호와 비자기보호 아동 모두를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이를 두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또래관계를 통한 사회적 발달과 아동이 지각한 자신의 인지 능력과 같은 인지적 발달에 대한 자기보호 여부 및 부모감독의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관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을 재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자기보호 아동의 보호를 위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 즉 방과후 보호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가정과 같은 미시적 생태체계 내에서 부모의 감독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더욱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이 갖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기보호 아동'의 정의는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기적으로 혼자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아동이라는 포괄적 정의(강병기, 1990; 최경순, 정현희, 1996)에서부터 아동의 연령(Cole & Rodman, 1989, 이옥, 1995에서 재인용)이나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거나, 성인보호 없이 꼭 혼자가 아니라도 어린 동생과 함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정의(Rodman et al, 1985)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평가되는 Dichtel(1986, 이옥, 1995에서 재인용)의 정의를 기초로 자기보호 아동이란 방과후 집에 돌아왔을 때 본인보다 어린 동생이 있거나 아무도 없으며 성인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에 5일 이상, 최소한 세시간을 혼자 지내는 아동으로 정의 내렸다.

'부모감독'은 감독의 사전적 의미를 따른 행동적 정의(Dishion & McMahon, 1998, Stattin & Kerr, 2000에서 재인용)보다는 지식적 정의(Crouter et al, 1990)를 기초로 정의내렸다. 최근 부모감독을 재해석했던 Stattin과 Kerr(2000)도 같은 정의에서의 부모감독을 측정할 바 있다. 따라서 부모감독은 자녀의 왕래 장소가 어디며, 무슨 활동을 누구와 하는지 등의 자녀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있는 지식정도를 의미한다.

'또래관계'는 또래관계에의 적응에 관련되는 관계의 질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사교적-리더쉽', '공격-분열성', '수줍음-고립성'의 세 차원으로써

반영된다(천희영, 1999b).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은 일종의 자기가치 또는 자아개념의 형태로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인지적 기능에 대한 자기 확신의 지각을 의미한다(전경숙, 1992).

II.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초등학교 4개교에 재학하는 3학년과 6학년 아동 429명이었다. 3학년과 6학년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학년 또는 연령에 따라 자기보호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적어도 6학년은 되어야 자기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어머니들의 지각(최경순, 정희희, 1996)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또 고학년인 6학년과 비교할 저학년은 예비조사 결과에서 부모감독이나 또래관계에 관한 신뢰성 조사에 응할 수 있는 학년으로 판단된 3학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학년별·성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학년별 전체 인원은 유사하지만 두 학년 모두 남아의 수가 여아의 수보다 25명, 22명씩 많았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아버지 직업분포를 보면, 사무기술직 37.0%, 자영업 30.1%, 피고용기능직 23.7%로 나타난 반면 단순노무직, 관리직, 전문직은 각각 4.3%, 2.9%, 1.3%였고 무직이 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분포에서는 무직 즉 전업주부인 경우가 47.4%였고, 자영업과 사무기술직 그리고 피고용기능직 종사자가 18.2%, 15.7%, 15.2%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순노무직에는 2.8%, 관리직과 전문직

에는 0.6%와 0.3%가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버지의 학력분포는 고졸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및 대졸이상이 34.2%, 중졸이하의 학력소지자가 17.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역시 고졸의 비율이 55.5%로 가장 높았지만 대졸이상이 22.1%, 중졸이하가 22.4%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2. 연구도구

또래관계의 질 평가를 위해 천희영(1999b)에 의해 타당화 과정을 거친 RCP(Revised Class Play)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 졌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의 학년을 고려할 때 사용 가능한 도구였다. 특히 기술적 짜짓기 방법에 의한 RCP는 '사교적-리더십', '공격-분열성', '수줍음-고립성'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은 14개, 9개, 5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차원별 신뢰도는 .94, .89, .77로 보고된 바 있다(천희영, 1999b). 각 아동이 RCP의 문항별로 또래에 의해 지명된 빈도를 구하고 이를 학급과 성범위 내에서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은 Harter(1982)의 자기능력지각 척도의 4가지 영역, 즉 인지적 능력의 지각, 사회적 능력의 지각, 신체적 능력의 지각, 그리고 일반적 자아지각 중에서 인지적 능력의 지각에 해당하는 6개 문항으로써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학업성취를 강조한 학교에서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정도를 1점~4점의 Likert식 척도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0) 역시 이 도구로써 아동이 지각한 학교능력을 측정한 바 있었다. 본 연구에서 문항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정도는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0)의 부모감독 연구에서 부모와의 전화면접을 통해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한 지식을 조사할 때 사용했던 질문을 기초로 7개의 질문을 선정한 다음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질문의 예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학년별·성별 구성 (N=429)

| 학 년 | 성 | | 전 체 |
|-----|-----|----|-----|
| | 남 | 여 | |
| 3학년 | 118 | 93 | 211 |
| 6학년 | 120 | 98 | 218 |

를 들면, “부모님은 어제 나에게 숙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은 어제 학교 마친 후 내가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알고 계신가요?” 등이 있다. “예”, “아니오”의 양식에 따라 아동이 응답하도록 했으며, 신뢰도는 .87이었다.

이 외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 평가를 위해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했다. 그리고 자기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 즉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일주일에 며칠동안 어른 없이 지내는지와 하루에 적어도 몇시간을 어른 없이 지내는지를 질문하였다.

3. 연구절차

부모감독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 자기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 등을 대상 아동들 특히 저학년인 3학년 아동들에게 실시할 때 이해의 어려움은 없는지를 알고자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 각각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하였다. 예비조사 과정과 교사의 조언을 참고할 때 3학년 중에서도 생일이 늦은 학생은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3학년 아동의 경우는 연구보조자가 직접 질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와 같은 해 12월 중순에 실시되었다. 특히 또래관계의 질 파악을 위해서는 적어도 아동들이 같은 학급에서 거의 2개 학기를 함께 생활한 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학교 일과 중 6학년은 교사가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으며 3학년은 교사 또는 연구보조자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실시과정에서 질문을 읽어가며 아동들이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4. 자료의 통계적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이선경(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 체계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여 무직, 단순노무자, 피고용 기

능인, 자영업자, 사무기술직, 관리직, 전문직 별로 0점~6점을 부여했다. 부모의 학력 역시 초등학교 졸업에서부터 대졸이상까지의 5단계로 나누어 1점에서 5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점수와 학력점수의 합은 최저 1점에서 22점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었다. 합의 분포에서 4분위 점을 기준으로 25%씩 4집단으로 분류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위 변인이 범주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감독 점수 즉 감독을 조사하는 7개 문항점수 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합의 'M+1SD'에 해당하는 집단, 'M-1SD'에 해당하는 집단, 그리고 중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부모감독 변인은 범주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두 연구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아동의 학년과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알기 위해 또래관계의 세 차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다중 종속변인에 의한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 검증을 위한 Bartlett-Box검증, 오차변량의 동질성 검증을 위한 Levene검증을 통해 기본가정을 검토하였다. 다변량 유의성 검증치로는 Pillai's Trace를 사용키로 하였다. Pillai's Trace는 표본의 크기가 작고 각 셀의 사례수가 다르며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이나 다변량 정상성을 가질 수 없을 때에도 합리적인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양병화, 1998). Scheffé 검증으로 사후검증 하였다.

또 아동의 학년과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정도에 따라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t 검증과 단변량분석을 각각 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및 해석

연구목적별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대상 아동 429명 중 본 연구의 '자기보호 아동' 정의에 적합한 아동의 수를 살펴본 바 106명으로 24.71%

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1. 아동의 학년,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또래 관계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년,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또래관계의 차원별

독립변인별 RCP의 표준화된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또래 관계의 차원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다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의 독립변인별 종속변인인 또래관계의 세 차원에 대한 집단차이 유의성을

<표 2> 학년,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또래관계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N=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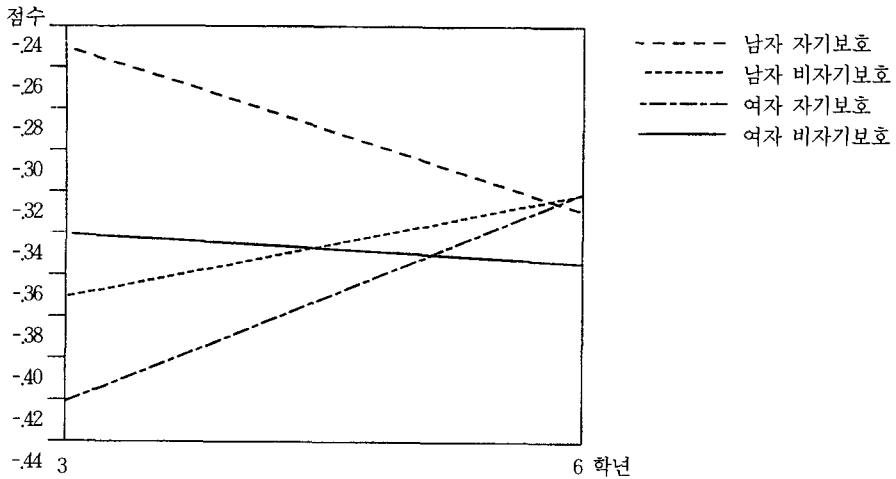
| 또래관계 차원 | 3학년 | | | | | 6학년 | | | | |
|---------|----------|----------|----------|----------|----------|----------|----------|----------|----------|----------|
| | 남 | | 여 | | 전체 | 남 | | 여 | | 전체 |
| | 비자기보호 | 자기보호 | 비자기보호 | 자기보호 | | 비자기보호 | 자기보호 | 비자기보호 | 자기보호 | |
| 사교적리더쉽 | -40(.19) | -42(.19) | -35(.17) | -33(.19) | -38(.19) | -43(.21) | -41(.18) | -42(.22) | -47(.17) | -43(.21) |
| 공격분열성 | -48(.12) | -45(.16) | -48(.14) | -51(.13) | -48(.13) | -47(.13) | -50(.12) | -52(.12) | -50(.12) | -49(.13) |
| 수줍음고립성 | -37(.19) | -25(.24) | -34(.21) | -42(.24) | -36(.21) | -32(.20) | -33(.20) | -35(.19) | -32(.17) | -23(.20) |

<표 3> 학년,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또래관계 점수의 다변량분석 결과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다변량 유의성 검증 | | 단변량 F검증 | |
|-------------|---------|----------------|-------|------------------|--------|
| | | Pillai's Trace | F | SS ^{주)} | F |
| 학년 | 사교적-리더쉽 | .02 | 3.10* | .27 | 6.90** |
| | 공격-분열성 | | | 3.27E-2 | 1.94 |
| | 수줍음-고립성 | | | 2.12E-2 | .52 |
| 성 | 사교적-리더쉽 | .01 | 1.91 | 4.12E-2 | 1.06 |
| | 공격-분열성 | | | 4.39E-2 | 2.59 |
| | 수줍음-고립성 | | | .11 | 2.61 |
| 자기보호 여부 | 사교적-리더쉽 | .00 | .16 | 1.49E-3 | .04 |
| | 공격-분열성 | | | 6.87E-4 | .04 |
| | 수줍음-고립성 | | | 1.79E-2 | .44 |
| 학년×성 | 사교적-리더쉽 | .02 | 1.69 | .16 | 4.20* |
| | 공격-분열성 | | | 2.36E-3 | .14 |
| | 수줍음-고립성 | | | 7.27E-2 | 1.77 |
| 학년×자기보호여부 | 사교적-리더쉽 | .00 | .12 | 4.40E-3 | .11 |
| | 공격-분열성 | | | 1.07E-3 | .06 |
| | 수줍음-고립성 | | | 3.82E-3 | .09 |
| 성×자기보호여부 | 사교적-리더쉽 | .01 | 1.20 | 4.09E-3 | .11 |
| | 공격-분열성 | | | 4.32E-4 | .03 |
| | 수줍음-고립성 | | | .12 | 3.01 |
| 학년×성×자기보호여부 | 사교적-리더쉽 | .02 | 3.42* | 4.54E-2 | 1.17 |
| | 공격-분열성 | | | 6.15E-2 | 3.64 |
| | 수줍음-고립성 | | | .25 | 6.07* |

주) 모든 독립변인의 df는 1이므로 MS는 SS와 동일함.

*p=.05, **p<.01



〈그림 1〉 '수줍음-고립성' 점수에 대한 학년×성×자기보호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한 결과, 학년의 주효과와 3차 상호작용효과(학년×성×자기보호 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세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단변량 F검정한 결과 '사교적-리더쉽' 차원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또래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사교적-리더쉽'은 3학년(M=-.38, SD=.19)이 6학년(M=-.43, SD=.21)보다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다변량 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단변량 분석에서 학년과 성의 이차 상호작용이 '사교적-리더쉽'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3학년에서는 여아의 '사교적-리더쉽'이 남아보다 더 높지만 6학년에서는 남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년×성×자기보호 여부'의 3차 상호작용의 효과는 '수줍음-고립성'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성별로 '수줍음-고립성'에 대한 학년과 자기보호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남아의 경우 3학년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이 비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수줍음-고립성'이 높지만, 6학년에서는 비자기보호 아동이 높았다. 반면 여아의 '수줍음-고립성'을 보면, 3학년에서는 비자기보호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높지만 6학년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표 4〉에 제시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근거로 두 독립변인 즉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변인이 종속변인인 또래관계의 세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05이하의 유의도 수준에서는 어느 독립변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독변인은 Roy의 최대 근값으로써 다변량 유의성 검증을 했을 때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종속변인별로 보았을 때 '수줍음-고립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수줍음-고립성' 점수는 감독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감독정도가 다른 세 집단의 차이를 Scheffé 검증으로 사후검정한 결과 특정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3. 아동의 학년,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모든 독립변인의 범주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어

<표 4>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N = 429)

| 부모의 사회적 지위 | 부모감독 | 또래관계 차원 | | | | | |
|------------|------|----------|-----------|----------|-----------|----------|-----------|
| | | 사교성-리더쉽 | | 공격-분열성 | | 수줍음-고립성 | |
| | | M(SD) | 전체의 M(SD) | M(SD) | 전체의 M(SD) | M(SD) | 전체의 M(SD) |
| 상 | 상 | -46(.20) | -42(.20) | -53(.12) | -50(.13) | -39(.19) | -35(.19) |
| | 중 | -36(.18) | | -49(.13) | | -39(.21) | |
| | 하 | -43(.22) | | -49(.13) | | -28(.17) | |
| 중상 | 상 | -34(.28) | -40(.21) | -46(.11) | -47(.12) | -49(.18) | -39(.20) |
| | 중 | -45(.18) | | -46(.12) | | -37(.24) | |
| | 하 | -40(.18) | | -49(.15) | | -33(.17) | |
| 중하 | 상 | -38(.24) | -40(.22) | -50(.11) | -50(.13) | -39(.17) | -34(.19) |
| | 중 | -41(.21) | | -49(.14) | | -30(.22) | |
| | 하 | -42(.20) | | -52(.15) | | -33(.18) | |
| 하 | 상 | -36(.18) | -41(.19) | -48(.11) | -49(.13) | -34(.25) | -34(.21) |
| | 중 | -44(.21) | | -48(.14) | | -37(.16) | |
| | 하 | -43(.16) | | -50(.14) | | -33(.22) | |

<표 5>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점수의 다변량 분석결과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다변량 유의성검증 | | 단변량 F검증 | | | |
|----------------|---------|-------------------|------|---------|----|---------|-------|
| | | Pillai's Trace | F | SS | df | MS | F |
| 사회적 지위 | 사교적-리더쉽 | .02 | .48 | 1.45E-2 | 3 | 4.83E-3 | .12 |
| | 공격-분열성 | | | 3.29E-2 | 3 | 1.10E-2 | .65 |
| | 수줍음-고립성 | | | 8.50E-2 | 2 | 2.83E-2 | .71 |
| 감독 | 사교적-리더쉽 | .03 ^{*)} | 1.37 | 5.21E-2 | 2 | 2.61E-2 | .64 |
| | 공격-분열성 | | | 1.25E-2 | 2 | 6.24E-3 | .37 |
| | 수줍음-고립성 | | | .28 | 2 | .14 | 3.52* |
| 사회적 지위 × 감독 | 사교적-리더쉽 | .06 | .78 | .25 | 6 | 4.16E-2 | 1.02 |
| | 공격-분열성 | | | 2.21E-2 | 6 | 3.68E-3 | .22 |
| | 수줍음-고립성 | | | .22 | 6 | 3.67E-2 | .92 |

*p<.05

주) Roy의 최대근 값은 .03으로서 .05의 유의 수준을 보임.

<표 6> 아동의 학년, 성,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375^{*)})

| 통계치 | 학년 | | | 성 | | | 자기보호 여부 | | |
|------|-------|-------|-------|-------|-------|-------|---------|-------|-------|
| | 3학년 | 6학년 | 전체 | 남 | 여 | 전체 | 자기보호 | 비자기보호 | 전체 |
| 평균 | 16.19 | 15.49 | 15.82 | 15.88 | 15.75 | 15.82 | 15.84 | 15.75 | 15.82 |
| 표준편차 | 2.86 | 2.30 | 2.60 | 2.40 | 2.80 | 2.60 | 2.60 | 2.58 | 2.60 |

주)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측정 7개 문항에서 하나이상의 무응답이 있는 아동을 제외한 숫자임.

변량의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학년변인의 변량 동질성 검정값인 Levene 통계량만이 4.21(p<.05)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인지적 자기

〈표 7〉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자아지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144)

| 사회적 지위 | 감독 | | | | | |
|----------|-------|------|-------|------|-------|------|
| | 상 | | 하 | | 전체 | |
| | M | SD | M | SD | M | SD |
| 상 및 중상지위 | 16.60 | 2.48 | 15.80 | 2.51 | 16.16 | 2.49 |
| 중하 및 하지위 | 15.55 | 2.50 | 14.95 | 2.55 | 15.29 | 2.53 |

〈표 8〉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자아지각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 변량원 | SS | df | MS | F |
|-----------|---------|-----|-------|-------|
| 사회적 지위 | 25.82 | 1 | 25.82 | 3.63* |
| 감독 | 16.28 | 1 | 16.28 | 2.29 |
| 사회적 지위×감독 | .33 | 1 | .33 | .05 |
| 잔차 | 995.32 | 140 | 7.11 | |
| 전체 | 1037.75 | 143 | | |

*p<.05

능력 점수의 차이 각각은 변량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을 때의 t값으로 분석되었다. t검증 결과, 전자는 $t=.46(p=.64)$, 후자는 $t=.31(p=.76)$ 로 나타나 아동의 성과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학년변인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지각 점수의 차이는 학년간 유의하게 나타났다($t=2.63, p<.01$). 즉 3학년의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점수($M=16.19, SD=2.86$)가 6학년의 점수($M=15.49, SD=2.3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지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¹⁾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변인이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볼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학년과 성, 그리고 자기보호 여부에 따라 또래관계와 인지적 자기능력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두 중속변인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 아동의 24.71%가 자기보호 아동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이들이 중·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

1)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른 자녀의 인지적 자아지각 점수의 변량분석을 위한 대상아동은 전체 대상 아동 429명의 33.6%에 해당하는 144명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 6〉의 주에서 설명했듯이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점수의 계산을 위해 7개 측정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무응답한 아동이 제외되어 375명으로 대상아동수가 줄었다. 둘째, 그 37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변량분석을 위해 기본 가정을 검토한 바, 또래관계의 점수 분석 시 사용했던 사회적 지위의 4범주와 감독의 3범주 각각의 사례수가 다른 상태에서 변량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될 수 없었다. 이에 사회적 지위를 상 및 중상지위 집단, 중하 및 하지위 집단의 두 집단으로 재범주화했고, 감독정도에 따른 집단은 상, 중, 하의 세 집단에서 $M \pm 1SD$ 사이에 해당하는 아동을 제외한 상, 하의 두 집단만을 포함기로 한 결과 변량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변인, 감독변인에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 어느 한 변인에서도 하나 이상의 무응답이 있을 경우 사례가 제외됨으로써 전체 사례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다. 즉 대도시 1~6학년 아동의 평균 자기보호 비율이 21%(한명희, 1992), 대도시 5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25.3%(김옥천, 1994), 중상층 아동의 26%와 하층 아동의 37%(구은미, 1989)가 자기보호 아동이라는 보고와 거의 유사한 비율임을 알 수 있었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간 '사교적-리더쉽'은 3학년에 비해 6학년이 낮으며, 3학년 때는 여아보다 남아의 '사교적-리더쉽'이 높지만 6학년 때는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Rubin, Hymel과 Mills(1989, 천희영 1999b에서 재인용)가 2학년 아동이 5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의 RCP 점수가 안정적이었는 결과 및 초등학교 3학년이 1학년보다 사교적,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임연진(1998)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연진(1998)의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 학년보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교사의 지각에 의한 사회적 행동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사에 의한 또래 상호작용의 관찰은 또래간의 상호작용보다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기초함으로써 RCP에 반응하는 또래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천희영, 1999b). 그러나 Masten, Morison과 Pellegrini(1985)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RCP 점수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17개월 뒤 학년과 반이 바뀔 때 따라 여아의 '사회적-리더쉽'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 여부는 또래관계의 질에 대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학년, 성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수줍음-고립성'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아의 경우 자기보호 아동은 비자기보호 아동보다 3학년에서는 '수줍음-고립성'이 높지만 6학년에서는 거의 유사한 집단 평균을 보인 반면, 여아의 경우는 자기보호 아동이 3학년에서는 '수줍음-고립성'이 낮지만 6학년에서는 비자기보호 아동보다 더 수줍어하거나 고립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아에게 있어 민감하고 고립적인 사회행동은 여아에 비해 자존감이 더 낮고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의 개입도와 필요능력이 더 낮아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지적(Morison & Masten, 1991)에 비추어 볼 때, 남아의 학년이 높아지면 수줍어하거나 고립적인 사회행동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주목되는 것은 자기보호 여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지면 '수줍음-고립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 같은 3차 상호작용 효과가 이 차원에서 뿐 아니라 6%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공격-분열성' 차원에서 역시 자기보호 여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지면서 비자기보호 아동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호 여아의 학년이 높아지면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 차원점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겠다. 아동의 성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 정도나 적응력의 차이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다. 강병기(1990)는 5학년 자기보호 여아가 일부 인지적 및 학업영역과 성격특성 즉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사려성 모두에서 자기보호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한 반면, Wood(1972)는 같은 연령의 자기보호 아동이라도 여아가 남아에 비해 성취기준과 그 점수가 낮고 사회적응도도 더 낮다고 했다. 또 Galambos와 Garbarino(1984) 등의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보호 상황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여 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여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았던 옥경희 등(2001)의 연구 역시 여학생의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남학생의 수준보다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있어 자기보호의 여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또래관계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감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은 집단의 아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수줍음-고립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서 수줍음은 낮은 대인적응성, 낮은 또래 수용성과 관련된다고 밝혀져 왔으며(도현심, 1995), Hymel, Rubin, Rowden과 LeMare(1990, 천희영 1999b에서 재인용)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초등학교

시기의 사회적 고립이 아동이 발달에서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천희영(1999b)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수줍음-고립성'은 '불안-위축'의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수준의 부모의 감독은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발달 중 적어도 또래관계에서 '수줍음-고립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모감독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 (Crouter et al., 1990; Kerr & Stattin, 2000; Stattin & Kerr, 2000)의 결과와 일관되게 부모감독이 중요한 가족과정의 하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이 아동에 대한 진지한 감독을 포함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관심의 목록(index)이라 할지라도,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0)은 부모감독의 수준이 너무 높아도 자녀의 독립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 맥락과 시기에 따른 부모감독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선애(1995)가 부모의 감독을 포함하는 간접적 자녀 통제유형이 아동기와 청소년 전기에 비해 청소년 중기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범위를 청소년기로 확대하고 부모감독의 수준을 다양화하여 연구함으로써 부모감독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에 대한 학년, 성, 자기보호 여부 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바, 학년변인의 영향만 유의하게 나타나 3학년이 5학년에 비해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동의 성과 자기보호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의 여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다는 연구 결과(Wood, 1972)와 그렇지 않다는 결과(Galambo & Garbarino, 1984)로 상반되게 보고되었다(천희영, 1999a)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아동의 성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포괄적인 자기능력 지각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능률성'에 대한 아동의 자아지각이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임연진(1992)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었다. 또 아동의 역량지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면 공통적으로 '신체적 자기능력' 차원에서였으므로(서선주, 1998; 이주리, 찰스 엠 수퍼, 1998), 아동의 성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의 지각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의 차이 역시 아동의 역량 지각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었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인지적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저학년 또는 저 연령에서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 능력을 과장되게 지각하거나 외부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의 능력보다는 외현적, 사회적 행동에 근거하여 능력을 평가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점점 내적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서선주, 1998; 이주리, 찰스 엠 수퍼, 1998; 임연진, 1992; 전경숙, 1992).

한편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은 부와 모의 학력과 수입에 근거한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리와 찰스 엠 수퍼(1998)는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에 영향 미치는 가정환경요인 연구에서 인지적 자기능력의 차원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수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발달에서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정도가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과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Harter & Pike, 1984) 부모감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있다는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0)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업성취의 점수화가 어려워 학교생활에서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자기자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와 부모감독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므로 부모감독과 학업성취도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부모감독이 자녀의 인지적 발달 특히 학교적응의 중요 척도가 되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다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의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 정도를 알기 위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감독 정도를 조사하였다. 자녀가 보고하는 부모감독의 정도가 부모보고와 차이 없다는 Kerr와 Stattin(2000)의 보고도 있으나 아동보고의 신뢰성을 사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Morison과 Masten(1991)의 지적을 고려할 때 RCP와 같이 또래평판에 의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행동 측정은 관찰자인 또래의 연령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년간 집단차는 발달적 차이 외에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분석셀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검증력이 약했고 그래서 유의한 영향 변인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첫째,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의 차이는 사회적 지위나 감독과 같은 부모변인들보다 학년, 학년과 성 및 자기보호 여부간의 상호작용 같은 아동변인에 의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기보호의 여부는 비록 상호작용 효과에 기여하는데 불과했지만 또래관계의 긍정적 질에 해당하는 '사교적-리더쉽' 보다는 부정적 질에 해당하는 '공격-분열성'이나 수줍음-고립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남자보다는 여자의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옴으로써 자기보호 여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사교적-리더쉽'은 3학년이 6학년보다 높다. 또한 3학년 때는 여아보다 남아의 '사교적-리더쉽'이 높지만 6학년 때는 남아가 높다. '수줍음-고립성'은 남아의 경우 3학년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이 비자기보호 아동보다 높지만 6학년 때는 비자기보호 아동보다 낮으며, 여

아의 경우는 3학년에서 자기보호 아동이 비자기보호 아동보다 낮지만 6학년에서는 비자기보호 아동보다 높다.

둘째, 부모의 감독정도에 따라 또래관계의 '수줍음-고립성'에 차이가 있다.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수줍음-고립성'이 낮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인지적 자기능력은 3학년이 6학년보다 높다. 그러나 아동의 성과 자기보호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인지적 자기능력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한다. 그러나 부모감독에 따른 차이는 없다.

■ 참고문헌

- 강병기(1990). 자보아동의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자기기간에 따른 지능, 성격, 학업성취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은미(1989). 자기보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외 통제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애(1995). 부모의 통제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옥천(1993). 자기보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1995). 도시지역 '자기보호아동' (Latchkey child)을 위한 방과 후 탁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 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3-53.
- 도현심(1995). 6학년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의 관계. 대안가정학회지, 33(5), 1-11.
- 서선주(1998).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 대안가

- 정학회지, 38(8), 1-12.
- 양병화(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 93-113.
- 이선경(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 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 옥(1993). 도시지역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양옥승 (편). 탁아연구 II (pp. 7-32). 양서원.
- 이 옥(1995).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 연구. 아동학회지, 16(1), 3-20.
- 이 옥(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의 방향. <http://www.women21.or.kr/html/family/fam02.htm>.
- 이재연, 강성희(1992). 방과후 성인의 보호없이 지내는 아동의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도. 논문집, 33, 313-323.
- 이주리, 찰스 엠 수퍼(1998). 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또래환경 결정요인의 공변량구조모형. 대한가정학회지, 36(11), 193-207.
- 임연진(1992). 또래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지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8).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 지각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경순(1996). 저소득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4(2), 379-390.
- 최경순, 정현희(1996).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 관계 및 정서발달. 아동학회지, 19(2), 107-117.
- 천희영(1999a).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과 부모역할 수행의 관계에 관한 기초연구. 아동연구, 8, 15-30.
- 천희영(1999b). 또래관계의 질 평가를 위한 RCP (Revised Class Play)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0(2), 3-19.
- 한국일보(1993). 방과후 방치국교생 늘고 있다. 10. 4.
- 한명희(1992).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순옥(1996).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탁아 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264-265.
- Bronfenbrenner, U. & Crouter, A. C. (1982).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model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P.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357-414). NY: Wiley.
- Crouter, A. C., Helms-Erikson, H., Updegraff, K., & McHale, S. M. (1999). Conditions underlying parents' knowledge about children's daily lives in middle childhood: Between-and within-family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70(1)*, 246-259.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H.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9.
- Galambos, N. L. & Garbarino, J. (1984).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 227-231.
- Eme, R. E. (1979). Sex differences in childhood psychopatholog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6.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for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Long, T. J. & Long, L. (1982). *Latchkey children*. Urbana, IL: ERIC Clearing 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Masten, A. S., Morison, P., & Pellegrini, D. S. (1985). A Revised Class Play method of peer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523-533.
- Morison, P. & Masten, A. S. (1991). Peer reputation in middle childhood as a predictor of adaptation in adolescence: A seven-year follow. *Child Development*, 62, 991-1007.
- Rodman, H., Pratto, D. J., & Nelson, R. S. (1985). Child care arrangement and children's functioning: A comparison of self-care and adult-car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13-418.
- Smith, T. & Rotatori, A. (1994). Relation of adult supervision to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fifth and sixth graders. *Psychological Reports*, 75, 1261-1262.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Vandell, D. L. & Corasaniti, M. A. (1988). The relation between third graders' after-school care and social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868-875.
- Vandell, D. L. & Ramanan, J. (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oices in after-school 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37-643.
- Woods, M. B. (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 14-25.